

# 국립국어연구원 소식

## 1. 국립국어연구원 1995년도 연구 보고서 발간

국립국어연구원은 1995년도의 조사 연구 사업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서로 발행하였다.

- (1) 한국 어문 규정집
- (2) 국어학 연감
- (3) '95 신어
- (4)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
- (5)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Ⅳ)
- (6)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
- (7) 기본 외래어 용례집
- (8) 국어 순화 자료집
- (9) 가나다 전화 자료집
- (10) 우리 나라 자형 조사 연구
- (11) 국어학의 번역 술어 연구

이 보고서들은 정부 기관,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관련 학계 인사, 기타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업무와 연구에 활용될 것이다. 각 사업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어문 규정집은 그동안 정부에서 고시한 어문 규정들을 정확하게 알리고 정착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것이다. 즉 어문 규정이 교육, 언론, 출판 등을 비롯한 모든 문화 생활의 바탕이 되므로 이를 바르게 익히도록 함은 물론, 규정과 용례 사이에 상충되거나 문제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94년 국어심의회 결정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일부 출판사 발행의 규정집에서 발견되는 잘못을 바로

잡고자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네 규정에서 보인 모든 용례를 한자리에 모아 놓은 찾아보기를 마련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국어학 연감은 해마다 국어학계의 연구 성과와 동향을 정리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다. 이번 1995년판은 1992년 이래 네 번째 나온 것으로 1994년의 국어학의 주요 일지, 국어학의 연구 동향, 국어학 관계 문헌, 국어학 관계 명부 등을 실었다. 국어학의 주요 일지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 관련 소식 등 1994년에 일어난 국어학계의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였고, 국어학의 연구 동향에서는 국어학 분야를 7개 분야로 세분하여 각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 흐름을 살폈으며, 국어학 관계 문헌에서는 국어학 관계 저서, 학위 논문을 포함한 논문, 신문 기사 등을 조사하여 분야별 논저 목록을 작성하였고, 정기 간행물 목록도 넣었다. 국어학 관계 명부에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국내외 국어학 전공자의 주소와 근무처 등을 소개한 국어학 인명록, 국어학 관계 학과, 국어학 관계 학회 및 단체, 국어정책 관계 위원회가 들어 있다.

'95 신어는 1994년 10월 13일('신어의 조사 연구'에서의 조사 시기 이후)부터 1995년 10월 23일 사이에 발간된 각종 신문과 잡지에서 신어를 조사·수집하여 정리한 보고서이다. 1,339개의 단어를 수집하였는데, 이 중에서 의미가 달라서 수집한 신어가 26개이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94년의 '신어의 조사 연구'에 연속되는 성격을 가진다. 해마다 발간할 예정으로 '95 신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신어의 판정 기준이나 보고서의 체제 등은 전년과 비슷하다. '95 신어에서는 외국어에서 온 말이나 한자어에 원어도 함께 제시하여 단어의 쓰임이나 유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남북한 친족 호칭·지칭어 비교 분석은 서울과 남한 각 지역의 친족 호칭어, 지칭어와 평양과 북한 각 지역의 친족 호칭어, 지칭어의 사용 실태를 표준 화법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조선말대사전'(1992)의 친족 용어를 부록으로 처리하여 북한의 화법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표준 화법의 친족 용어와 서울, 평양의 친족 용어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표로 보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일 차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과 평양 이외의 남북한 각 지역의 사용 실태는 본문 해설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 화법에 대하여는 '표준 화법 해설'(1992, 국립국어연구원)의 내용을 그대로 빠짐 없이 담았으므로 따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IV)은 속담과 관용구의 사전 수록 실태에 관한 남북한 비교 보고서이다. 북한에서 1992년에 발간된 '조선말대사전'에는 총 16,451 항목의 속담과 관용구가 실려 있다. 이를 남한에서 간행된 두 종류의 국어대사전과 속담 사전과 비교하여 그 등재 여부를 조사하였다. 비교 결과 북한 사전의 속담·관용구 중 남한 사전에 실려 있는 것들이 약 52%에 이르렀고, 48%의 속담과 관용구는 북한 사전에만 실려 있었다. 남북한 사전 편찬 담당자들의 편찬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달리 수록된 것들을 제외하고, 북한 사전에만 실려 있는 속담·관용구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남북의 어휘 차이로 인해 남한에는 없는 속담이나 관용구들이 있다.
- (2) 남한 기준으로는 속담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는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구호나 상투적인 어구들이 포함된다.
- (3)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낸 속담이나 관용구들이 있다. 이 중에는 전래하는 속담의 일부를 호전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바꾼 것들도 있다.

남북한 외래어의 비교 연구는 1990년대에 서울과 평양에서 각기 발간된 국어 사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골라, 어형면, 의미면, 뜻풀이 방법면 등을 비교·정리한 것이다. 우선 어형면에서 자모순·유형별로 제시한 후, 의미면은 의미 영역면·의미 가치면에서, 뜻풀이 방법면은 어휘 선택면·문장 기술면·표현 효과면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남북한 사전에만 각기 실린 외래어 목록도 보았다.

기본 외래어 용례집은 외래어가 범람하는 언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국민이 언어 생활 중에 안심하고 써도 좋은 외래어를 가려내어 그 용례를 보인 기본 외래어 용례집을 2,000부 발간하였다. 기본 외래어 용례집이 발간됨으로써 어떤 외래어가 국어 생활에서 수용해도 좋은 외래어이고 어떤 외래어가 쓸 필요가 없고 써서는 안 될 외래어인지에 대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이 용례집에 수록된 기본 외래어는 1,200여 개인데 스포츠, 음악, 미술 등 전문 분야의 용어는 제외하였다.

국어 순화 자료집은 정부가 1992년에 순화한 건설·미술·식생활·신문 제작 용어, 1993년에 순화한 선거 정치 용어와 생활 외래어, 1994년에 순화한 임업·봉제 용어, 1995년에 순화한 행정 용어와 일본어투 생활 용어 등 총 5,021어를 모아 '국어 순화 자료집'(1995, 신국판, 총 210면) 1,000부를 발간하였다. 수록 용어들은 모두 우리 원의 검토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쳤다. 건설·미술·식생활·신문 제작 용어는 1992년 심의 당시 제외되었던 구분 등급을 새로이 심의하여 수록한 것이며, 이 용어들을 포함하여 선거 정치 용어, 생활 외래어, 임업 용어, 봉제 용어들도 순화한 용어와 구분 등급을 일부 수정 심의하여 수록한 것이다. 행정 용어는 총무처가 1995년에 문화체육부에 심의 의뢰한 것으로 일부 용어는 과거에 순화한 용어 중 수정 요청한 것이고 나머지는 총무처에서 새로 수집한 용어들이다. 일본어투 생활 용어는 1995년에 문화체육부와 우리 연구원이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일상 생활에서 여전히 쓰이는 일본어투 용어들을 모아 순화하여 고시한('95. 8. 31.) 것이다.

가나다 전화 자료집은 지난 5년 동안 15,000여 건을 처리한 실적을 분석하여 같은 유형 230여 건을 어문 규범, 표준 화법, 단어의 용법, 국어 순화, 국어 정책 건의 등으로 분류하고, 찾아보기를 '가나다' 순서로 정리하여 궁금한 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 자료집이다. 가나다 전화(전화 번호 : 02-771-9909)는 지난 '91년 2월 2일 국민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연구원 안에 설치한 국어 생활 상담 전화이다.

우리 나라 자형 조사 연구는 한·중 한자 표준화 사업에 대비해 우리 나라의 표준 자형 작성을 위한 기초 조사 사업으로 시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이다. 동문선, 국조보감 등 조선 시대 시문선집과 대표적인 자전류, 금석문에 쓰인 이체자를 조사하였으며, 대상 글자는 KS5601로 하고 있다.

국어학의 번역 술어 연구는 국어학계에서 그 동안 다양하게 번역되어 온 술어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통일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나아가 술어 번역의 원칙을 제시하여 술어 번역에 도움을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95년에는 번역 술어 중에서도 문법론 분야의 술어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96년에는 음운론과 국어학의 나머지 분야의 번역 술어를 대상으로 조사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서 조사한 문헌은 언어학 사전, 언어학 개론, 문법론 번역서 등 모두 18

중이며, 기술 방식은 ‘원어, 번역어[출전 약호]/번역어[출전 약호]/..., 참고어, 논평’의 형식을 취하였다. 출전이 표시된 번역어는 어떠한 번역어가 우세한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처음에 쓰인 번역어와 최근에 쓰이는 번역어들을 모두 보여 주며, 논평은 기존의 번역어 중에서 어느 번역어가 가장 적절하며 또한 적절치 못한 번역어는 왜 적절치 않은지를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술어 번역의 기준 6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관련어를 고려해야 한다.
2. 원어와 번역어가 일대일 대응을 가지도록 한다.
3. 원어의 문법적 속성이 번역어에서도 유지되도록 한다.
4. 국어의 조어 방식과 부합해야 한다.
5. 지나친 직역이나 지나친 의역을 삼가야 한다.
6. 원어가 가지는 다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2.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회의 개최

문화체육부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웅백)는 건설·미술·식생활·신문 제작 용어(총 1,496어)의 구분 표시와 행정 용어(1,071어)의 순화안을 최종 심의하였다.(’95. 12. 20.) 최종 심의에 앞서 국어심의회는 세 차례의 소위원회(위원: 송민, 정재도, 심재기, 박갑수) 회의를 열어 이 용어들을 사전 심의하였다.(’95. 12. 8./ 12. 13./ 12. 15.) 국어심의회는 이번 심의를 통하여 ‘박모(薄暮), 문와쿠(門わく), 오일 펜스(oil fence)’ 등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어휘, 불필요한 서구 외래어들을 ‘땅거미, 문틀, 기름막이’ 등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도록 하였다. 위 안건들 외에 한국화 미술 용어(156어)도 심의에 상정되었으나 좀더 체계적으로 용어를 수집·정리할 필요가 있어 심의 보류하였다.

## 3. 국어심의회, 로마자 표기법 심의

국어심의회 표기법분과위원회(위원장 김완진)는 1996년 3월 6일 오후 2시 문화재관리국 회의실에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여부를 심의한 끝에 현행 표기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 회의에서 국어심의회 위원들은 도로 표지판에서도 반달표와 어긋점을 생략하는 것을 허용할지를 놓고 토의한 결과 미봉적인 수정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 4. 제10차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 결정 사항

정부 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 위원회는 1996년 3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표기의 혼란을 보이고 있는 외래어 74개에 대하여 한글 표기를 심의, 결정하였다.

원어	한글
James Sasser	제임스 새서
Claus Vollers	클라우스 폴러스
ATACMS	에이태컴스
Sheraton (Hotel)	셰러턴 (호텔)
blockbuster	블록버스터
gender	젠더
Naomi Campbell	나오미 캠벨
Aleksander Kwaśniewski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
Gyula Horn	줄러 호른
Javier Solana Madriaga	하비에르 솔라나 마드리아가
Włodzimierz Cimoszewicz	브워지미에시 치모세비치
Val-d' Isère	발디제르
Bob Robert Dole	보브 돌
Bob Hope	보브 호프
San Jose	새너제이
Las Vegas	라스베이거스
Dallas	달러스
Gdańsk	그단스크
Poznań	포즈난
Leon Brittan	리언 브리턴
李登輝	리덩후이
APEC	에이펙
ASEAN	아세안
ASEM	아셈
EEZ	이이지

Martin L. Perl  
 Frederick Reines  
 Paul Crutzen  
 Mario Molina  
 Sherwood Rowland  
 Edward Lewis  
 Christiane Nuesslein-Volhard  
 Eric F. Wieschaus  
 Seamus Heaney  
 Pugwash  
 Joseph Rotblat  
 Robert E. Lucas  
 橋本龍太郎  
 久保亘  
 長尾立子  
 池田行彦  
 奥田幹生  
 菅直人  
 大原一三  
 塚原俊平  
 龜井善之  
 日野市朗  
 永井孝信  
 中尾榮一  
 倉田寛之  
 梶山静六  
 中西績介  
 岡部三郎  
 白井日出男  
 田中秀征  
 中川秀直  
 岩垂壽喜男  
 鈴木和美

마틴 펄  
 프레더릭 라이너스  
 파울 크뤼첸  
 마리오 몰리나  
 셔우드 롤랜드  
 에드워드 루이스  
 크리스티아네 뉘슬라인폴하르트  
 에리크 비샤우스  
 셰이머스 히니  
 퍼그워시  
 조지프 로트블랫  
 로버트 루커스  
 하시모토 류타로  
 구보 와타루  
 나가오 리쓰코  
 이케다 유키히코  
 오클다 미키오  
 간 나오토  
 오하라 이치조  
 쓰카하라 슌페이  
 가메이 요시유키  
 히노 이치로  
 니가이 다카노부  
 나카오 에이이치  
 구라타 히로유키  
 가지야마 세이로쿠  
 나카니시 세키스케  
 오카베 사부로  
 우스이 히데오  
 다나카 슈세이  
 나카가와 히데나오  
 이와타레 스키오  
 스텝키 가즈미

大森政輔	오모리 마사스케
Valentine Day	밸런타인 데이
lesbian	레즈비언
coordinator	코디네이터
combiner	컴바이너
Jeniffer Capriotti	제니퍼 캐프리오티
Pete Sampras	피트 샘프러스
Denis Roadman	데니스 로드먼
Martin Fiz	마르틴 피스
Janet Evans	재닛 에번스
Ian Woosnam	이언 우즈넴
Netday	넷데이
Netscape	넷스케이프
Intranet	인트라넷
Kidnet	키드넷

### 5. '96년도 국어문화학교 강의 안내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민이 바르고 고운 국어 생활을 하도록 '96년도 국어문화 학교를 다음과 같이 개설합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 강의 계획

기수	반 별	기간(3일간)	시 간	수강 대상자 범위
20기	국어반(특별반)	4. 30. - 5. 2.	10:00 - 16:30	출판계 실무자 및 일반인
21기	번역반	6. 18. - 6. 20.	10:00 - 16:30	전문 번역자 및 일반인
22기	국어반(청소년반)	8. 27. - 8. 29.	14:00 - 17:40	중·고생(중3 이상) 및 일반인
23기	국어반(특별반)	9. 17. - 9. 19.	10:00 - 16:30	출판계 실무자 및 일반인
24기	국어반(일반반)	11. 19. - 11. 21.	10:00 - 16:30	일반인 및 직장인

<참고> 위의 교육 일자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교재는 국어문화학교 교재로 강의 첫 날에 배부함.



2. 강의 내용

- 국어반(특별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언어 예절, 잘못 쓰이는 우리말 표현, 국어 순화, 바른 문장 쓰기 등
- 국어반(청소년, 일반반): 한글 맞춤법의 실제,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언어 예절, 잘못 쓰이는 우리말 표현, 국어 순화, 바른 문장 쓰기 등
- 번역반: 국어 문법과 번역, 번역과 국어, 신어와 외래어, 번역의 실제, 번역과 오역,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3. 수강료: 무료

4. 수강 신청 방법:

- 직접 오셔서 신청하거나 전화(779 - 4818), 전송(779 - 4819)으로 신청할 수 있음.

5. 교육 장소: 덕수궁내 궁중유물전시관 소강당 (덕수궁 입장료 무료)

## 6. 연구원 인사 이동

### 사임

강인선: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사임('95년 11월 8일자)

권인한: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사임('96년 3월 1일자)

윤용선: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사임('96년 3월 18일자)

### 신규 발령

이승재: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발령('96년 2월 1일자)